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  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 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#### [미국 경제]

- Bloomberg: 1월 미 소비자 물가 예상보다 높아... '금리 변동 없다'
- Bloomberg: 파월 연준 의장 의회 보고, 트럼프는 금리 인하 촉구
- WSJ: "미 경제 낙관론, 아직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아"

#### [미국 금융]

- Bloomberg: 월가, 거의 1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 접해
- Bloomberg: 투자자들, "연준 올해 딱 한 번 금리 인하" 예상

#### [Goldman Sachs Insights for KOCHAM]

- 금융 및 AI Insights 보고서들

#### [미국 생활]

- Bloomberg: 미 사립학교 등록금 5만불 육박

#### [오일]

- WSJ: 유가 하락, 미 원유 재고 대규모 증가 때문

#### 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- Bloomberg: 미 항공사, 고객 현금 보상 지침 철회 요구
- WSJ: 관세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 올라간다
- Bloomberg: CVS 4분기 수익 개선

#### 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 정보

### [미국 경제]

#### **Bloomberg: US Inflation Tops Forecasts, Dimming Chances for Fed Rate Cuts**

##### **1월 미 소비자 물가 예상보다 높아... '금리 변동 없다'**

- 올해 들어서 미 인플레이가 전반적으로 상승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.
- 오늘 수요일 연방 노동청의 발표에 따르면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0.5% 상승해 지난 2023년 8월 이래 가장 크게 올랐다. 작년 12월에는 0.4% 상승했었다.
- 작년 1월과 비교해 소비자 물가는 3%, 식품과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핵심 소비자 물가는 3.3% 상승했다.
- 식품과 가스비 같은 가구 지출 비용이 상승세를 주도했다. 또 거주 비용 인플레이가 상승 폭의 30%를 차지했다. 차량 보험, 항공료, 처방약값 등도 상승했다.

## Bloomberg 기사

### Bloomberg: Trump Calls for Lower Interest Rates as Powell Heads to Hill 파월 연준 의장 의회 보고, 트럼프는 금리 인하 촉구

- 트럼프가 오늘 수요일, 소셜미디어에 다가오는 관세 시행에 맞춰 금리도 인하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. 트럼프 2기 정부가 관세와 감세를 추지하는 가운데, 연준에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것으로 보인다.
- 해당 소셜미디어는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늘 수요일,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에 경제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출석하기 전에 올라왔다. 이는 오늘 오전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기 한 시간 전이기도 했다.
- 파월 의장은 어제 상원 은행 위원회에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었다. 한편, 트럼프는 인플레이의 책임을 바이든 전 대통령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.

## Bloomberg 기사

### WSJ: U.S. Economic Optimism Isn't Converting Into Hiring Yet, Randstad CEO Says

“미 경제 낙관론, 아직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아”

- 전세계 최대 채용 서비스 회사인 Randstad의 최고 경영자 Sander van't Noordende는 미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아직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.
- 미 노동부는 1월에 14만3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발표했는데, 이는 작년 11월과 12월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.
- Randstad의 CFO Jorge Vazquez는 “그동안 인플레이와 높은 금리 때문에 고용 활동이 저조했다. 하지만 현재 일부 부문에서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했다. 이 같은 긍정적인 상황에서 Randstad는 운송 및 물류 부문에 집중하고 있다.”라고 말했다.
- Nordende는 “글로벌 일자리 시장이 안정화되기 시작했으며, 최악의 상황은 끝났다. 전문화를 통한 성장이 핵심이다.”라고 말했다.

## WSJ 기사

## [미국 금융]

### Bloomberg: Wall Street Set for Worst CPI Day in Nearly a Year: Markets Wrap

월가, 거의 1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 접해

- 오늘 수요일 거의 1년 만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 폭이 최고치를 기록했다.
- 트레이더들은 지속적인 고물가 상황 때문에 연준이 12월은 돼야 금리를 한 번 인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. 이에 따라 증시가 타격을 받았고, 국채 금리는 치솟고 있다.
- S&P500은 0.45%, 나스닥은 0.4% 하락세를 보였다. 10년물 국채 금리는 4.65%를 기록하고 있다. 달러도 상승 중이다. 트럼프 정부는 강한 인플레이 보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,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다.

#### Bloomberg 기사

### **Bloomberg: Traders See Just One 2025 Fed Rate Cut After Hot Inflation Data**

#### 투자자들, “연준 올해 딱 한 번 금리 인하” 예상

- 오늘 수요일 예상보다 강한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됐다. 이에 따라 채권 투자자들은 연준의 다음 금리 인하가 12월은 되어야 할 것이라는 데 베팅하고 있다.
- 당초 향후 연준 금리 결정 관련 스와프 선물은 올해 9월 금리 인하를 예상했었다. 또한 금리 인하 폭도 0.25%포인트로 예상된다.
- 현재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0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한 4.38%를 기록했다.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0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한 4.64%를 기록했다.

#### Bloomberg 기사

### **[Goldman Sachs Insights for KOCHAM]**

- 골드만삭스가 정기적으로 KOCHAM에 보고서를 보내주고 있습니다.

### **Global Economics Analyst: DeepSeek Raises Micro Risks, Macro Upside (Briggs)**

#### 딥시크는 미시적인 리스크와 거시적인 상승 잠재력 동시에 보인다

-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AI 모델은 기존 AI보다 적은 비용으로 비슷한 성능을 보여줬다. 이에 따라 AI 수입 배분과 관련해 3가지 질문이 나오고 있다.
- 1) AI 투자 사이클에서 비용 감소 단계가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는가? 2) 대규모 AI 투자가 지속 가능한가? 3) AI 인프라 기업들이 상당한 매출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?
- 딥시크가 가진 거시적인 여파는 작을 수 있어도, 그것이 긍정적인 전망임은 틀림없다.

## Global Economics Analyst

## Global Strategy Views: Concentration & Correction – what to do next 글로벌 증시 전망: 대형 기술주 집중화와 전망

- 지난 18개월간은 놀라울 정도의 증시 강세와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인해 주식은 완벽하게 기대치를 반영하고 있었다.
- 우리의 견해는 현재 조정 상태이며, 향후 지속적인 베어마켓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.

## Global Strategy Views

## GS SUSTAIN: AI/data centers' global power surge: The push for the 'Green' data center and investment implications AI/데이터 센터의 글로벌 전력 급증: 그린 데이터 센터와 투자 여파

- 골드만 삭스는 2030년 글로벌 데이터 전력 수요가 2023년보다 165%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. 빅테크 기업들은 전력 조달과 전탄소 해결책을 위해 전방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.
- 향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는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의 40%만 충족시킬 수 있다. 이에 따라 2030년대에 원자력 발전이 대폭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.

## GS SUSTAIN

## (Audio, Transcript도 있음) Goldman Sachs Chairman and CEO David Solomon on the global business environment, AI, and the rise of private credit

### 골드만삭스 CEO의 글로벌 Biz 전망: 인공지능과 비공개 대출(Private Credit)

- 골드만삭스 CEO가 올해에 비즈니스 환경이 더욱 긍정적이며, 자본시장도 상승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한다.
- 비즈니스 기업체들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고, 골드만삭스는 사모펀드 등 비공개 대출(Private Credit)의 성장을 비롯한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어떻게 보는지 공유한다.

## Global Business Environment, AI, and Private Credit

## (Audio, Transcript도 있음) Goldman Sachs - Keep on truckin': Will the US continue to outperform other markets? 미국이 다른 시장보다 계속 뛰어날 수 있을까?

- 골드만 삭스 투자 전략팀이 미국의 탁월한 성과와 지속적인 투자가 왜 장기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설명한다.

Keep on truckin

**(Audio, Transcript도 있음) Goldman Sachs - AI Exchanges: Will falling costs drive new opportunities?**

**저렴한 AI 모델이 새로운 기회를 이끌 수 있을까?**

- 저렴한 AI 모델은 빅테크 기업들의 높은 AI 및 관련 인프라 투자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. 골드만 삭스 전문가들이 AI 개발 비용과 시행, 그리고 관련 거래에 따른 여파와 이슈를 설명한다.

AI Exchanges

**[미국 생활]**

**Bloomberg: US Private School Tuition Nears \$50,000 as Inflation Lifts Costs**

**미 사립학교 등록금 5만불 육박**

- 미 사립학교 등록금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.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교사 급여, 교재 등 비용이 증가하면서 등록금이 상승한 것이다.
- S&P Global Ratings에 따르면 통학 학교의 연간 학비는 약 7.4% 상승한 평균 4만9천2백84달러를 기록했으며, 기숙 학교는 약 5.3% 상승한 7만3천80달러를 기록했다. 통학 학교의 등록금 상승률은 10년 만에 최고치다.
- 하지만 이런 비용 증가에도 수요는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. 약 60%의 학교가 2024년 가을 학기 등록률이 2023년보다 증가했다고 보고했으며, 4.8%의 학교는 증가율이 3% 이상이라고 밝혔다.
- S&P 부국장 Alexander Enriquez는 “교육 기관들은 학비를 낮게 유지해 시장 점유율을 잃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다. 학교가 아직 가격을 통제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.”라고 말했다.

Bloomberg 기사

**[오일]**

**WSJ: Oil Slides After Reports of Large U.S. Crude Inventories Build**

**유가 하락, 미 원유 재고 대규모 증가 때문**

- 미 원유 재고가 대규모로 늘었다는 보도 이후 유가가 하락했다. 브렌트유는 1% 하락한 배럴당 76.24달러를,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1.1% 하락한 배럴당 72.50달러를 기록했다.

- 미 석유 협회(American Petroleum Institute)는 미 원유 재고 증가량을 904만 배럴로 추정했다. 만약 실제로 904만 배럴이 증가한 것이라면, 1년 만에 가장 큰 재고 증가가 된다.
- 한편, 미 에너지 정보국(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)은 원유 수요 전망은 그대로 유지하고, 생산량 전망을 약간 상향 조정했다.
- 현재 시장은 OPEC과 국제에너지기구(International Energy Agency)의 월간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다.

WSJ 기사

### 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#### **Bloomberg: Airlines Urge US to End Biden Push on Paying Stranded Customers**

##### **미 항공사, 고객 현금 보상 지침 철회 요구**

- 미 항공사들이 교통부에 바이든 정부 시기 시작된 고객 보상 지침 철회를 요구했다.
- 해당 지침은 항공사 과실로 비행이 대폭 지연되거나 취소된 고객이 최소 200달러에서 최대 775달러의 현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.
- 미 항공사는 해당 지침이 트럼프 행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겠다는 정책과 맞지 않으며, 고객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.

Bloomberg 기사

#### **WSJ: Why Tariffs Will Make Car Insurance Even More Expensive**

##### **관세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 올라간다**

- 자동차 보험료는 생각보다 관세에 민감하다. 관세가 자동차 부품과 중고차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.
-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멕시코, 캐나다, 중국에 대한 관세 위협을 발표했으며,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발표했다.
- 지난 주에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동등하게 적용하는 '상호 관세'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.
- 자동차 보험료는 최근 몇 년 동안 급등했다. 이미 2024년 중반 미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료는 2023년보다 20% 이상 상승했었다. 2024년 12월에도 11% 이상 상승했다.

WSJ 기사

## Bloomberg: CVS Soars After Fourth-Quarter Profit Signals Improvement CVS 4분기 수익 개선

- CVS 4분기 수익이 개선됐다. 자회사인 Aetna 보험 부문의 낮은 비용이 큰 도움이 됐다.
- CVS는 4분기 보험료 수입의 94.8%를 의료 서비스에 지불했다고 밝혔는데, 이는 분석가들의 예상보다 낮은 수치다. 이에 따라 오늘 수요일, CVS 주가는 15% 상승했다.
- CVS는 약국 체인과 보험 사업을 살리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. 해당 사업들은 가격 책정 미비와 미국 건강 보험 프로그램의 서비스 품질 등급 하락으로 타격을 받았었다. 품질 등급이 하락하면 미 정부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다.

Bloomberg 기사

### [보고서]

## 뉴욕증시 '트럼프 관세 우려' 뒤로하고 상승...나스닥 1%↑ 관세 예고에 美철강사 클리프스 18% 급등...철강·알루미늄 업종 강세 '딥시크 충격' 벗어나며 엔비디아 3%↑...JP모건 "딥시크·관세에도 美증시 긍정적"

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10일(현지시간) 뉴욕증시는 크게 반응하지 않은 채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세로 마감했다.

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67.01포인트(0.38%) 오른 44,470.41에 거래를 마쳤다.

스탠더드앤드푸어스(S&P)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0.45포인트(0.67%) 상승한 6,066.44에.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90.87포인트(0.98%) 오른 19,714.27에 각각 마감했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